

# 鄭芝溶 散文論

柳 泰 洙\*

## I. 問題의 提起

이 글은 鄭芝溶의 散文을 다룸으로써 그의 의식구조 파악과 아울러 그의 詩 理解에 도움을 마련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鄭芝溶은 1925년 京都 留學生의 會誌 《學潮》에 시를 발표하면서부터 《朝鮮之光》을 거쳐 《詩文學》에 이르러 文壇에 주목받는 시인으로, 그후 《가톨릭靑年》에 信仰에 관한 시를 발표했으며 《文章》에 이르러서는 選考委員으로 활약하는 등, 우리 近代詩壇의 중추적인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後進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初期부터 《文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몇년간 석의 침묵을 지켰고<sup>1)</sup> 《文章》 폐간 후에는 詩作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시인이기도 했다.

해방 후 그가 詩에 손을 대지 못하고 散文만을 주로 쓴 것은 물론 外的인 狀況도 크게 작용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內面 意識 속에서 찾아야할 것이며, 해방 전 중간중간에 있었던 침묵과 散文 指向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詩의 沈默과 散文 指向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詩的 遍歷으로서만이 아니라 意識의 變貌 樣相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

\* 國文學科同門(江原大)

1) 그는 1926년 말부터 1927년 9월까지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나 그후부터 1930년 3월 《詩文學》이 나오기까지는 〈갈매기〉, 〈유리창〉 정도의 발표였고, 1936년 7월부터 1938년 3월까지도 꿈백기였고, 39년 초 《文章》이 나오기까지 또한 발표를 중단했으며 1941년 1월 《文章》 3권 1호에 실은 〈朝餐〉을 비롯한 시육음 〈鄭芝溶詩集〉도 그러하다.

이다. 이와 아울러 植民地 治下와 해방을 겪은 심한 變動期 知識人의 性格 파악에 또 하나의 例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鄭芝溶에게는 두 卷의 散文集이 있다. 첫번째 것은 1948년 2월 初版, 1949년 3월 再版을 낸 博文出版社 刊의 《지용文學讀本》이고 또 하나는 1949년 1월 同志社에서 펴낸 《散文》이다. 이밖에 《文章》에 추천사 또는 選後評 형식의 짧은 글들과 《鄭芝溶詩集》과 《白鹿潭》 V 부에 몇편이 실려 있다. 우선 《지용文學讀本》은 첫부분인 社會評論 성격의 4편을 제외 하던 해방전 글로 볼 수 있는데, 記行文 성격의 글이 32편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며 그에 〈詩의 威儀〉, 〈詩와 發表〉, 〈詩의 擁護〉 등 그의 詩論을 보여주는 글이 있고, 그리고 간단한 감상문이 수록되어 있다. 《散文》은 그 머리말에 밝혀있듯이 해방후 글이 압도적이고 또한 書評, 跋文, 演劇, 舜鎔評 등과 휘트만의 詩翻譯이 있다. 그중 제 II 부에 〈朝鮮 詩의 反省〉과 〈詩와 言語〉가 수록되어 있다.

## II. 散文指向의 意味

해방 후 시에 대한 그의 의식은 많은 論者들이 지적하듯 해방 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現實과 事態에 對應하여 精確한 政治感覺과 批判意識이 稀薄하면 할수록 流離하던 될수록 그의 詩的 表現이 封建的 習氣 以外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본다. 詩의 材料도 될수 있는 대로 現實性이 薄弱한 것일수록 「詩的」인 것이 되고 言語도 이에따라 生活에서 後退된 것이므로 그런 것이 「巧妙한 完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稱飾이 될지언정 生活라는 躍動하는 詩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2)</sup>

그가 사용하고 있는 單語에서부터 그 意味에 이르기까지 해방 전의 글, 예컨대,

2) 鄭芝溶, “朝鮮學的 反省”, 散文(同志社, 1949), p. 101.

詩人은 亨亨한 巨松이어도 좋다.  
그위에 한마리 猛禽이어도 좋다.  
굽어보고 高慢하라.<sup>3)</sup>

등과는 전혀 다른 認識體系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해방 전의 자기 詩世界를 비판하게 한다.

思春期에 戀愛대신 詩를 썼다. 그것이 詩集이 되어 잘 팔리었을 뿐이다. 이 나이를 해가지고 戀愛대신 詩를 쓸수야 없다. 思春期를 훨씬 지나서부담은 日本놈이 무서워서 山으로 바다로 廻避하여 詩를 썼다.<sup>4)</sup>

결국 그가 해방 후 주장한 글 “詩와 文學에 生活이 있고 勤勞가 있고 批判이 있고 鬭爭이 있고 摘發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옳은 예술이다”<sup>5)</sup>에 비추어 볼때 ‘山으로 바다로 廻避하며’ 쓴 시는 옳은 예술이 아닌 ‘그른 예술’인 것이다.

이로보아 鄭芝鎔이 해방 후 이데올로기를 선택했을 때, 그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한 그 이데올로기의 硬直性으로 인해 詩를 포기하기에 이르고 나아가 政治·社會評論을 주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모와 함께 다음과 같은 進술도 散文指向의 이유를 드러내준다.

그 동안에 詩集 두권을 내었다. 남들이 詩人 詩人하는 말이 너는 국난이 국난이 하는 소리 같이 좋지 않았다. 나도 散文을 쓰면 쓴다——泰從단치 쓰면 쓴다는 辯明으로 散文쓰기 練習으로 試驗한 것이 책으로 한 권은 된다.<sup>6)</sup>

시를 至高로 생각하던 그의 태도<sup>7)</sup>에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글로서,

3) 鄭芝鎔, “詩의 擁護”, 지용文學讀本(再版: 博文出版社 194.), p. 214. (以下 鄭芝鎔의 글은 作品名, 出典, 페이지만 밝힘)

4) “散文”, 散文, p. 31.

5) 윗글, p. 32.

6) “몇마디 말씀”, 지용文學讀本, 서문

7) 예컨대 “사랑은 커니와 詩를 읽어서 文脈에도 通하지 못하나니 詩의 文脈

앞서도 말했지만 그의 시세계를 더듬어보면, 시로써 그가 향하고자 하는 궁극에 대한 흔들림을 자주 보여주었고 그리하여 시의 발표에서 자주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나면 새로운 변모를 보여준, 정지용의 인식체계에 심한 모순 내지 괴리감을 드러내준다.

이는 또한 장르선택의 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가 스스로를 李泰俊과 대비한 말, ‘나도 散文을 쓰면 쓴다——泰俊만치’에서도 나타나지만 詩 장르 선택에 어떠한 회의를 지녔음을 가정할 수 있다. 世界의 自我化를 서정양식으로, 世界와 自我의 對決을 서사양식으로서의 성숙한 장르라고 구분 설명할 경우 정지용은 스스로 자신의 문학세계가 未熟했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지용 자신의 氣質 내지 自己 辨護에서도 散文 指向을 볼 수 있다.

表現技術에 있어서도 多情多恨을 主調로 하는 封建時代 詩人 文士의 手法的 原型에 外來的 感覺 色彩 音樂性을 着色하여 無氣力하게도 微妙한 完成으로서 그친것이므로 이를 次代 民族文學에 接木시키기에는 血行力이 枯渴한 것이다.<sup>8)</sup>

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시가 어떠한 民族的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封建時代의 殘滓와 外來의 影響에 의한 것이라는 自嘲에 가까운 자기 비판은 그가 고수해온 시세계를 심화·확대시키지 못하고 대신 정치·사회 평론에 기울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그의 散文 指向은 抒情的 次元에 머물고 있다. 스토리를 지닌 글도, 對話를 끌어들이거나 性格을 보여주는 글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世界의 自我化의 일부로써 나타날 뿐이다. 정지용의 산문은 그의 得意의 作 〈琉璃窓〉의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

은 그들의 너무도 記事的인 普通常識에 連結되기는 不適當 尙畵이다. 常識에서 整然한 說話, 그것은 散文에서 찾으라. 叡智에서 嶄新한 嬰孩의 訥語, 그것이 차라리 詩에 가깝다”(“詩의 擁護” 兪재, p. 208)가 그 例證의 하나가 될 것이다.

8) “朝鮮詩의 反省”, 散文 p. 94.

벌써 유리창에 날벼레처럼 미끄러지고 엉키고 동그르 궁글고 흠이 지고 한다. 매우 間易한 風景이다. 그러나 빗방울은 觀察을 細密히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오늘 悠悠히 나를 고늘수 없으니 滿幅의 風景을 앞에 펼칠수 없는 닳이기도 하다.<sup>9)</sup>

## Ⅱ. 散文에 投影된 意識構造

정지용 산문은 몇가지 基本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본항들은 그의 世界觀을 형성하면서 전체 글 속에서 地盤 구실을 하고 있다. 물론 이 基本項들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며 나타난다.

### 1. 童心の 世界와 그 變容

童心の 세계는 그의 기질에서 연유된다고 보여지며 이것은 사물의 파악·인식을 거쳐 詩精神의 문체에까지 확산된다.

간밤에 옷층에서 瓦斯暖爐를 피우고 댕님과 술을 痛飲하고나서 댕님이 주정 하시는 바람에 나는 나려와 큰조카 아이를 붙들고 울은 생각을 하고 나의 열은 情이 부끄러워진다.<sup>10)</sup>

兄의 주정 후 그 나름대로의 해결방식은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붙들고 우는 童心の 世界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한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즉시 자기의 “열은 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는 未熟과 成熟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정지용의 내면은 童心の 세계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술되겠지만 그의 詩論의 기본이 되는 天才論은 바로 이러한 童心 世界の 자리바꿈에 다름 아니다.

어린이의 새 말마개 배우지 않는다. 어린이의 말은 즐겁고 斷新하다. 으레 쓰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詩에 오르면 번번히 새로 誕生한 血色에 붉고 마

9) “비”, 잊채, p. 123.

10) “畫文行脚(一一), 五龍背·1” 지용文學讀本, p. 176.

뜻한 體重을 얻는다.<sup>11)</sup>

다른 곳에서도 그는 “피꼬리는 피꼬리소리바게 發하지 못하나 함시 새롭다. 피꼬리가 熟練에서 운다는 것은 不名譽이니라, 오직 生命에서 튀어나오는 恒時 最初의 發聲이야만 陳腐하지 않는다”<sup>12)</sup>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最初의 發聲은 바로 ‘어린아이의 새말’인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詩를 이루는 基本이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童心의 世界는 成熟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모순 충돌한다. 그것은 때로는 退行性으로 빠지거나 때로는 대상의 외면적 관찰에 그치고 만다.

홍역, 암세기, 양두발반, 그리고 감기, 백일해 그러한 것들을 앓지 앓고도 다시 소년이 될 수 있소? 그럴수 있다면 다시 되어봄직도 하지요!<sup>13)</sup>

결국 成熟에의 기본적인 行路에 있는 고뇌라든지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고 피하고자 하는 의식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童心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그가 뛰어들지 못하고 다만 바라보는 것으로만 해서 보상될 뿐이다. 그의 詩 〈琉璃窓〉에서 나타나는 유리창이나 그의 산문 곳곳에서 보이는 유리창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事物化 내지 對象化 추구의 한 수단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유리창이란 저편 세계를 아름다움, 깨끗함으로 파악케 하는 수단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경도는 女子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게 된다.

아름 사람이 고혼 사람이고 보면 서둘러 위로하기가 즐겁지 않은 노릇도 아니다.<sup>14)</sup>

美에 대한 경도는 아픔도 美에 싸여있음으로 해서 그 아픔까지도 自

11) “詩의 擁護”, 윗책, p. 208.

12) 윗글, p. 213.

13) “더 좋은데 가서”, 윗책, p. 22.

14) “여유” 이레 n. 72

我化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의 산문에는 素材로 女子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少女, 妓生 등 생활과 무관하다고 파악한 소재와, 女給이나 海女 등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고 그가 믿은 소재 그리고 主婦 혹은 아내와 같은 생활상의 女性이라는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소재는 아름다움이 사물로 형상화되며, 童心 세계의 變容으로 보여진다. 반면 두번째 소재는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생활의 표면만 포착되어 예찬된다. 그리고 세번째 것은 개성과 인격을 도외시한 정물로서의 女性像이다. 그러나 이상 셋 모두 事物化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동일한 양상을 띤다.

少女를 冬栢과 동일시<sup>15)</sup> 한다거나,

玄關까지 뛰어나오며 歡呼하는 恩姬는 뛰고 나는것이 爛漫한 鳥類가 아닐 수 없었다.<sup>16)</sup>

에서처럼 爛漫한 鳥類로 少女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人間의 植物化·動物化로서 전혀 상대방의 내면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바라다보는, 나아가 玩賞하고자 하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결벽성과 결부되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까지 변모된다.

우린 일어섰다. 차고 움추린 굴 하나를 집어들며 「굴하고 우리 정숙이라고 조끼에 집어넣고 갈까?」 깃을 사리며 아양아양 다가드는 貞淑이가 주머니 속에서 구기어지지 않을 것 같다.<sup>17)</sup>

## 2. 生活과 視線의 違和

일이라든지 직업 또는 풍습 등 생활에 관련된 서술은 記行文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예찬에 그치는 동심 세계의 변용에

15) “書文行脚(三), 宜川·3”, 윗책, p. 135.

16) 윗글, p. 138.

17) “安岳”, 윗책, p. 72.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부의 갈등 모습은 도외시한채 겉으로 고운 것만 골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시 앞에서 언급되었던 事物化에 그치고 있는 때문이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 생활과 자신과의 대결을 통해 얻어진 인식체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世界의 自我化로서 抒情의 차원에 머물고 있음으로 파악된다.

女人은 대개 구름이 것처럼 좋치는 않았다. 그리하여 女人의 살림살이란 스—교와 愛情을 날름으로 制限되고 만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이 水蒸氣를 맡아올려 세운, 움직이는 建築, 너무도 空想的인 甚大한 構成, 虛妄한 美學, 그러한 것들이 女人의 審美에 맞을 까닭이 없는 것이요.<sup>18)</sup>

女性은 ‘스—교’이라는 생활, ‘愛情’의 굴레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규정되고 그 이외의 면은 하등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少女·妓生과는 다른 부류의 여성 묘사로 볼 수 있는데 少女·妓生은 완상의 대상이지만, 이 경우 여성은 생활 속의 여성이다. 이 묘사는 정지용 자신의 부인이 그의 산문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여인의 경우 “나를 생활과 가정의 黑奴”로 만든 장본인이며 “솔선하여 남편을 선동해서 어린 것들과 가까운 距離의 海風이라도 쇠임죽도 한것이 自己解放의 一利가 되는 것일줄을 도모지 모르는것에 틀림없다.”<sup>19)</sup>라고 그 자신의 아내를 치부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 女人들은 다만 생활 속의 여성이지 개성을, 인격을 지닌 여성은 아닌 것이다.

潛水鏡을 이다에 붙이고 소중의(潛水衣)로 簡單히 重要한데만 가린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만한 것으로도 自然과 勤勞와 直接 格鬪하는 女性으로서의 風敎에 實감힘테가 조금도 없는 것이요 실로 美麗하게 발달된 몸이 스포츠나 體操로 얻은 肉體에 비길 배가 아니었습니다.<sup>20)</sup>

18) “구름”, 윗책, pp. 16-7.

19) “多島海記(一), 離家樂”, 윗책, p. 109.

20) “多島海記(六), 歸去來”, 윗책, p. 127.



제주도 여행에서 해녀를 묘사한 부분으로 생활을 위한 ‘格闘’라는 언급 후, 곧바로 ‘실로 美麗하게 발달’하였다는 묘사가 아무런 충돌없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그가 생활마저도 하나의 사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 예찬과 그 서술에서 심한 違和感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글,

물건팔기 위한 아침이라든지 誇張하는 言辭를 들을 수 없고 등을 밖으로 向하여 앉아 聖經 읽기에 골몰하다가 손님이 들어서면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은 후에 별로 수고로운 인사도 없이 다시 돌아앉아 책을 드는 女主人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사다.<sup>21)</sup>

와 같이 생활을 생활자체로 파악하지 않고 다만 심미적인 대상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여행은 “戀愛와 悲哀에 대한 風習”<sup>22)</sup>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여 호기심의 충족으로 끝날 뿐이다.

### 3. 植民地 治下 祖國 認識의 皮相性

그의 조국 인식은, 詩의 경우 小市民의, 白手의 인텔리, 亡國人으로서의 苦惱, 故鄉愛着으로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산문을 살펴볼 때 그러한 인식은 상당히 피상에 흐르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한번은 魚乙彬夫人한테 들은 말인데 미세스·시오미〔金髮碧眼 美人인데 國際結婚한 님으로 시오미 姓을 따른 會話先生——引用者註〕는 조선유학생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敵意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내가 相國寺 솔밭길로 散策中에 미세스·시오미가 허둥지둥 절절매며 오다가 나를 보고 「미스터·레이시오우! 당신 우리 어린애 못보았오?」 나는 그저 「노우!」하여 버렸습니다.<sup>23)</sup>

조선 유학생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이를 찾는 선생에 대한

21) “舊文行脚(一), 宣川·1”, 뒷책, p. 131.

22) “多島海記(三), 海峽病(2)”, 뒷책 p. 118.

23) “愁誰語(四)”, 뒷책, p. 83.

대답에 ‘그저 「노우!」하여 버렸’다는 것은 어린아이 세계의 쾌감 외에  
는 다른 아무 의식도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조차 확인하지 못한 다만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는 정지용 아닌, 일본 본토에 끌려온  
노동자들이 더욱 구체적인, 조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두조건 일본인을 싫어하는 태도는 소박한 민족주의이기는 하지만  
적대의 이유는 뚜렷이 나타난다.

세루양복에 피리를 갈렸거나 치마대신에 하까마, 저고리 대신에 기노모를 입  
었다는 理由로단 욕을 막 퍼붓고 회학질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다.<sup>24)</sup>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위에 대한 朝鮮人 女學生과 함께 산책을 나온  
정지용의 태도는 가식적이다.

덴히 알아들을 소리〔육설——引用者註〕를 모르는체 하는 그리한 것이 이를  
태던 敎養의 결핍 것이리라. …(中略)… 그러나 우리들의 好奇心과 鄉愁는 挫  
折되지 아니하였었다.<sup>25)</sup>

이러한 피상적인 인식은 조선것이든 무엇이든지 좋다는, 비판의식을  
수반한 투철한 성찰이 없는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朝鮮 초깃집 피름이 역시 정다운 것…(中略)… 山도 초산山이 곱다…다시 情  
이 드는 顔面血管이 바작바작 바스러질듯한데도 하늘빛이 아주 고  
와 紅雲 그림 길게 날리며 펄펄 걷고 싶다.<sup>26)</sup>

한편 조국 인식의 한 경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애감을 들 수 있다. 특  
히 그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사투리 借用, 古語의 再生, 造語 등의 노력  
은 산문에서도 드러나는데, 시와는 달리 외래어 역시 그에 못지않게 등  
장한다. 예컨대 〈書文行脚〉(十), 平壤 1)은 글 전체가 평안도 사투리로

24) “鴨川 上流(下)”, 윗책, p. 53.

25) 윗글, p. 54.

26) “書文行脚(四), 義州·1”, 윗책, pp. 139-140.

이루어져 있을때도 불구하고 “스탠드에 불을 댕기구 쉐넨데리아는 꼬구 이내 잠이 들기에 힘이 아니들었던 모양이다.吉이 내가 누운 寢臺에 걸테앉아 꿈에서 같이 웃는거디었다”<sup>27)</sup>에서 보듯 ‘댕기고’, ‘걸테앉아’ ‘웃는거디었다’와 함께 ‘스탠드’, ‘셴데리아’를 등장시키고 있다. 물론 배경이 호텔이어서 그런 외래어가 쓰이겠지만, 정치용 자신의 措辭의식에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4. 古典趨向의 虛構性

정치용은 그 고전취향에 있어서 남보다 도저한 바가 있다. 그가 후진들에게도 “古典적인 것을 陳腐로 速斷하는 者は 별안간 뛰어드는 野蠻일 뿐이다”<sup>28)</sup>라고 말할 정도다.

과연 그가 말하는 古典이란 무엇일까? 혹자는 한국어의 탐구라고 하기도 하고, 經書·聖典, 東洋畫論·書論을 뜻한다고도 하고, 감정노출의 억제, 절제 등의 태도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산문에 드러나는 고전취향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그 하나는 品格으로 파악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詩論에서 검출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소위 그가 해방후 말하는 “表現技術에 있어서는 多情多恨을 主調로 하는 封建時代詩人·文士의 原型”<sup>29)</sup>의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밤늦어 들어온 장국에 다시 義州의 風味를 느끼며 數百年 두고 國境을 守禁하기는 오직 風流와 傳統을 擁護하기 위함이나 아니었던지 …멀티 義州에 와서 필석 「李朝의」인것에 感傷하며…<sup>30)</sup>

이 경우의 古典취향은 ‘李朝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風流와 傳統을 擁護하기 위한 國境의 守禁’으로 국경의 의의를 포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歷史的 상황을 自己 便意대로 확정짓는 태도이다. 자신의 지

27) “畫文行脚(十), 平壤·1”, 윗책, p. 166.

28) “詩의 擁護”, 윗책, p. 213.

29) “朝鮮詩의 反省”, 散文, p. 94.

30) “畫文行脚(五), 義州·2”, 지용文學讀本, p. 149.

반을 확인할 겨를은 차치하고 모든 것을 자기 감정 유로의 장식화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의 古典趣向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술과 나무, 화초 그리고 글, 글씨 등을 人格, 人品에 비유하여 묘사한 글들이 많다.

구렁이나 뱀이 허리를 감아올라가면 이내 살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합니다. 貞烈한 女性과 같은 나무의 自尊心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中略)... 맛이 좋아서 치는 과실이 아니라 品이 좋아서 祖上을 위하는 祭祀에나 놓는다 하니 백에 한번이라도 감기어 쓰겠습니까.<sup>31)</sup>

石榴를 貞烈한 女性으로 비유하고 그 自尊心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하여 석류는 祭床에나 올린다고 하는 品格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品에 대한 설명은 술이나 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品이 좋은 것으로 한되으로는 탁시 신세를 혹시 지우지 않을사한데 그것은 量의 素質로 의론할바이요 남은것은 格을 높일 것이며 分別을 기를것이라.<sup>32)</sup>

글이 좋은이의 이름은 어쩐지 이름도 덧보인다. 이름을 보고 글을 살피려면 글씨도 다른것에 뛰어난다. 原稿紙 取擇에도 그사람의 숨씨가 들어나 글과 글씨와 종이와 그사람의 性情과 風貌가 서로서로 어울리는듯도 하지 않은가?<sup>33)</sup>

처음 글은 술 먹는 品에 人間의 品格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다음 글은 原稿紙 선택에까지도 品格을 볼 수 있다는, 조금의 흠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결벽성을 드러내주는 次元의 것이다.

한편 민요에 대한 그의 인식도 古典趣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위의 경우와 달리 날카로운 역사감각을 아울러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세계에서 民謠的인 면을 실험했었다는 점에도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南道소리나는 것이 封建支配階級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든지 아첨하기 위하

31) “石榴, 甘柿, 柚子”, 윗책, pp. 106-7.

32) “愁謠語(二)”, 윗책, p. 75.

33) “詩와 言語·七”, 散文, p. 118.

여 發達된 一面이 있는것을 否定할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지! 結局 音樂의 原理에서 出發한 것이 둘이다 勿論 巴에야 愁心歌는 純然히 背景사이에서 自然發生한 土俗的 歌謠라고 볼수바게 없을가 한다.<sup>34)</sup>

또한 문체에서도 그의 古典趣向은 잘 드러난다. 즉 남쪽에 金永郎의 고향에 여행가서 쓴, 그리고 제주도 여행에서의, 편지글 형식의 기행문에서 보이는 아름답고 고운 대상만의 선택, 古典趣向의 語彙사용, 그리고 문체면은 아니지만 婦德의 칭송에서 바로 그러하다.

세상에 착한 어머니로서 재조와 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묻히어 알 바이 없이 다만 누구의 어머니로서 傳할뿐이니 東洋의 婦德이란 이렇다시 심수한 것이로다.<sup>35)</sup>

이러한 고전취향은 그 다루는 방법에서 정지용 특유의 동심의 世界, 絶벽성, 깨끗함의 추구하고 결합되면서부터 그 허구성을 드러낸다.

값진 陶器는 꼭 음식을 담아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귀한 책은 몸에 병을 진 허듯이 暗記하고 있어야할 理由도 없습니다. 聖書와 함께 밀리 때워놓고 생각만 하여도 좋고 엷은 黃昏이 차차 짙어갈제 書籍의 密集部隊앞에 등을 향하고 고요히 앉았기만 함도 敎養의 深刻한 表情이 됩니다.<sup>36)</sup>

즉 그에게 고전은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肉化되는 존재가 아니라 깨끗하게 드러지지 않도록 바라다만 보는, 그리하여 과거로만 존재하는 골동품이며 또한 교양을 꾸며주는 방편일 뿐이다. 그의 古典趣向에서는 역사의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 5. 詩論에 나타난 詩精神과 形象化 論理

정지용의 시론은 그의 시를 다룰 때는 물론, 1930년대 시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도 다루어지면서, 여러 논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그의 산문과 관련하여 고찰하기로 하자.

34) “書文行脚(八), 平壤·2”, 지용文學讀本, p. 156.

35) “옛글 새로운 정(上)”, 잊재, p. 87.

36) “밤”, 鄭芝鎔詩集 (詩文學社, 1939), p. 148.

## ① 詩精神의 面

시 정신의 면에서 그의 시론은 性情論, 天才論 그리고 思想性的 강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그는,

시는 마침내 先賢의 밝히신 바를 그대로 좇아 吾人의 性情에 돌릴 수 밖에 없다. 性情이란 본시 타고난 것<sup>40)</sup>

파악하여 본시 타고난 性情에 의하여 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古典詩學에 의하면 “성정은 개인적 정서의 표현”이라는 면으로 조선조 시인들이 시의 본질로 性情을 다루고 있는바<sup>41)</sup> 이와 정지용의 性情論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정지용은 性情을 물에 비유하여 “性情이 썩어서 毒을 발하되 바로 사람을 傷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라는 이름하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 범람하며 詩를 이루기는커녕 性情마저 상하게 되니 차라리 “目不識丁의 農夫”가 되라고 하고 있다.<sup>42)</sup> 그럼에도 그는 詩를 통한 인격 도야에까지 언급하여 중국고전시학 내지 한국 고전시학의 性情論<sup>43)</sup>의 차원까지 접근하고 있으나 詩人 자신의 덕성함양을 중시할 뿐 그 이상의 세계로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즉 그의 대 사회적 시관이 해방전에는 보이지 않은 때문은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시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소위 天才論이다. 20세 전후의 青春에 서정시로 一家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나, 시를 自然現象으로, 靈感의 소산으로 그리고 시인의 타고

40) “詩와 言語·二” 散文, pp. 109-110.

41) 鄭大林 教授의 <朝鮮後期の 詩學>에 의하면 “시가 性情에서 나오지 않거나 風教에 관계되지 아니하며, 善이건 惡이건 사람을 권장하거나 징계할 것이 못되면 모두 취하지 않을 것이다”, “시는 性情의 虛靈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成三問, 柳夢寅의 글을 다루면서 性情을 논하고 있다, (全鑒大外 3人, 韓國古典詩學史(弘盛社, 1979), pp. 371-5. 參照)

42) “詩와 言語·二”, 散文, pp. 110-1.

난 才分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련의 詩觀은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는 술어들이다.

시는 실력이 람보다도 먼저 才分이 빛나야<sup>43)</sup>

詩가 衝動과 喜悅과 能動과 靈感을 기다려서 겨우 心血과 魂魄의 結晶을 얻게 되는 것<sup>44)</sup>

詩人是 究極에서 言語文字가 그리 대수롭지 않다…(中略)… 表現의 技術的인 것은 차라리 詩人の 타고난 才幹 혹은 平生 熟練한 腕法의 不知中 所得이다.<sup>45)</sup>

따라서 그가 언어탁마에 힘을 기울이고 그로써 일단 시적 성공을 가져왔지만 이 天才論에 비추어 볼 때, 그 言語文字나 表現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은 전술한 바 동심의 세계나 피요리의 最初의 發聲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천재론과 실제현실에서 나타나는 언어 조탁 문제의 모순 극복에 정지용의 시론은 맞닥뜨리게 된다.

둘째, 그는 精神美와 思想性を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순수하고 열렬한 것이면 服裝·몸짓 등의 外形美는 저절로 온다고 보고 있다.

文學인이 追求할바는 精神美와 思想性に 있는바니 服裝이나 外形美도 論難하기란 禮답지 못한 노릇이라고 하라. 그러나 志向하고 修練하는 바가 純粹하고 熱烈한 것이고 보면 몸짓까지도 절로 飄逸하게 되는 것이니<sup>46)</sup>

그가 말하는 精神美나 思想性的의 속성은 自然과 人間에 대한 깊은 開發의 深度에서, 緊密히 血肉化된 自然·人間·生活·思想에서, 古典에서, 信仰에서, 원천으로서의 東洋畫論·書論, 經書·聖經 등에서 파악된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의 시론은 엄격한 논리에 의한 사유나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인 어휘를 끌어온다든지, 비유조차 자연현상에

43) “詩選後”, 文章 1卷 7號, p. 205

44) “詩와 發表”, 지용文學讀本, p. 202.

45) “詩의 擁護”, 잊책, p. 208.

46) “詩와 言語·三”, 散文, p. 112.

기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시론의 本性을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이러한 면 역시 그의 산문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동심의 世界, 깨끗함, 대상(여기서는 詩)의 事物化 과정, 고전취향 등이 시론에서도 드러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② 形象化的 面

우선 그는 감정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다. 많은 논거에서 즐겨 인용되고 있는,

안으로 熱하고 겉으로 서늘옴이란 一種의 生理를 壓伏시키는 노릇이기에 심히 어렵다. 그러나 詩의 威儀는 겉으로 서늘옴기를 바라서 마지 않는다.<sup>47)</sup>

는 詩觀이 바로 그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감격을 먼저 신중히 이 동시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언급은 그 이전의 영탄, 감정 유로로 이루어진 시에 대한 반성이자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 점에서 정지용이 현대시의 선편을 쥐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점에서 그가 모더니티를 추구했던 이유도 드러난다. 그러나 절절한 시정신 면과는 또한 이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으로는 靑春이나 영감이나 才分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겉으로는 그것이 감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상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정지용이 해방전까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다만 그는 정열을 淸貧의 運用으로써 타개해 나가야한다는 고전취향의, 그리고 추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 산문시, 민요시 등의 다각적인 실험을 《白鹿潭》에서 보여주고는 있으나, 해방후 기질과 장르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이 문제를 포기하고 급기야는 詩를 쓰지 못하는 詩인이 되고 만다.

다음으로 그는 多作을 피하고 休養의 重要性을 역설하고 있다.

피고리 종달새는 노상 우는 것이 아니고 우는 나날보다 울지않는 달수가 더 길다 …(中略)… 詩를 위한 休養이 오히려 詩作보다도 귀하기까지 한 것이니,

47) “詩의 威儀”, 지용文學讀本, p. 196.



休養과 停滯와 다른 까닭에서 그러하다.<sup>48)</sup>

이 多作의 문제는 “感情의 浪費는 春春病의 한가지로서 多情과 多作을 性的動機에서”<sup>49)</sup> 多情과 동일시되어 모두 春春病으로 보고 있다. 이 점과 함께 다음 언급할 書籍 心讀이나 旅行의 권유는 모두 鄭芝鎔 자신의 休養 방법으로서 나타나는데, 해방후 ‘日本놈이 무서워서 山으로 바다로 廻避하며’ 시를 썼다는 그의 진술과 《白鹿潭》의 시편을 아울러 고찰해 보면 자신으로서도 참담한 내외적 환경을 반증한다고 보여진다.

休養기간 중 해야할 일로서 古人의 書 心讀, 새로운 지식 접촉, 모국어 외국어 공부를 권하고 있는데 이점 역시 그가 평생을 두고 合致點을 찾으려고 애쓴 분야들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자연현상의 몸짓, 호흡을 같이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神과 영혼, 신앙, 사랑, 삶과 죽음에 열렬한 천착을 강조하고 있다.<sup>50)</sup>

한편 기법 문제에서 시학, 시론, 시법에 의탁하지 말되 그것은 演習·熟通에서 얻고 구극에는 기법을 망각해야한다<sup>51)</sup>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시금 그의 천재론과 넘나드는 태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言語文字란, 천재론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진술을 볼 때 그가 말하는 언어가 “시의 소재 이상 거진 唯一의 方法”<sup>52)</sup>이라면 그때 그것은 구체적 언어가 아니라 추상적·심미적 언어인 것이다.

詩의 神秘는 言語의 神秘다. 詩는 言語의 Incarnation의 一致다. 그러므로 詩의 精神的 深度는 言語의 精靈을 잡지 않고서는 表現製作에 오를 수 없다.<sup>53)</sup>

따라서 그가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 실제적

48) “詩와 發表”, 硯齋, p. 199.

49) 硯齋, p. 200.

50) 硯齋, pp. 202-3.

51) “詩의 擁護”, 硯齋, p. 212.

52) “詩와 言語·一”, 散文, p. 106.

53) 硯齋, pp. 108-9.

언어 문자와 추상적 언어, 정령을 지닌 신비적 언어를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언어는 시의 집이라는 소위 하이데거의 命題에 상응하는 언어관을 그는 가지고 있다.

詩神이 居하는 宮殿이 言語요<sup>54)</sup>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지적하듯 그는 언어에 대한 才分내지 노력이 너무 勝했고 精神의인 면에서 內面的인 천착에서 심한 자기 부정·갈등을 겪어 왔다. 이러한 점은 역시 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요약 및 반성

이상, 정지용의 산문을 통한 그의 인식구조의 파악을 위하여 전개된 논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가 산문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서 다음 몇 사항을 들 수 있다.

- 1) 그의 시가 봉건시대의 잔재와 외래의 영향이라는 스스로의 자기 회의,
- 2) 해방후 이데올로기의 선택, 자기 부정, 경직성으로 인한 산문지향,
- 3) 장르선택 면에서 서정양식과 서사양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혹은 기질적 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산문 역시 抒情的次元에 머물고 만다. 이점 해방 후 그가 文學的인 글을 쓰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문을 주로 해방 이전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사항들이 그의 의식구조로써 드러날 것이다.

- 1) 그의 산문의 基調를 이루는 것은 동심의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그의 깨끗함이라든가, 아름다움에 대한 경도, 나아가 시론의 기

54) 윗글, p.109.

본이 되는 天才論의 발상이 놓인다. 그와 아울러 그의 산문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女子라든가 나무 등의 자연물은 모두 事物化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그 대상의 내면세계는 차치되고 다만 관찰자 정지용 자신의 自我化 과정만이 노출된다.

2)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生活에 대한 글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그가 시론에서 밝히고 있는 深度있는 생활이라는 면을 포함하여 그가 대하는 현실과 그에 대한 서술은 심한 違和感을 드러 낸다.

3) 植民地 治下에 서 있는 白手의 인텔리로서의 고뇌의식은 그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감정적 차원 혹은 호기심이나 향수에 그치는 조국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한편 한국어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외래어의 빈번한 출입은 그의 措辭의식에서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다.

4) 古典趣向은 시는 물론 산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산문의 경우 그 趣向은 品格으로 파악될 정도일 뿐 歷史意識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民謠論, 文體에서 역사감각과 고전취향을 어느 정도 보여줄 뿐이다. 결국 그의 고전취향은 완상용의 골동품 취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5) 그의 시론은 크게 詩精神면과 形象化의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性情論의 경우 고전시학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天才論은 그의 기본적 詩觀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精神的 面에서 그는 詩를 自然과 人間의 깊은 통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음, 감정의 절제, 휴양의 필요, '시는 언어의 incarnation的一致'라는 면에서 그 形象化의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으로 熱하고 겉으로 서늘움기'를 至高의 目標로 삼은 정지용에게 이 양자는 서로 모순·충돌하면서 그의 시세계에서 진행되다가 결국 그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만다.

이상으로 정지용의 산문을 살펴보았으나 시와 산문과의 직접적인 관

런상황은 거의 언급치 못했고 그의 특질 중의 하나인 수사 내지 문체의 특성을 산문에서 추출하지 못했고, 그가 이어오고 지녀온 동양 내지 한국의 전통과 서구문물의 영향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판이한 양상을 띤 해방후의 시사평론을 비롯한 글들도 거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위의 요약에서 나타나는 미숙한 점에 대한 보완과 언급히 못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해질 때 정지용의 전면적인 의식 구조가 드러나리라 기대된다.